

# 서구, ‘천원국시’ 여름 냉국수 선보여

무더위 맞아 계절 메뉴 도입...주민 만족도 높인다

복지·일자리·지역농산물 소비 잇는 대표 복지사업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천원국시 매장 사진

/광주 서구청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무더위 속에서도 주민들이 부담 없이 시원한 한 끼를 즐길 수 있도록 ‘천원국시’에서 여름 한정 메뉴인 냉국수를 선보인다.

이번 냉국수 판매는 무더운 여름철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고 계절에 맞는 메뉴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마련했다. 판매 매장은 화정4동점, 상무1동점, 상무2동점, 금호1동점, 농성2동점 등 5곳이다.

냉국수는 운영 초기부터 하루 판매량의 약 36%를 차지하며 이용객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서구는 이용객 만족도와 판매량, 운영 효과 등을 분석해 내년부터 전체 매장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구의 대표 복지사업인 천원국

시는 취약계층에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한 끼를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이다. 2023년 양동 1호점을 시작으로 2025년 유덕동 10호점까지 확대됐으며 현재 매장별 하루 100그릇씩 총 1000그릇을 제공하고 있다.

또 천원국시는 지난해 노인 일자리 220명을 창출하고 서창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 밀 2만5200kg을 소비하는 등 복지과 일자리, 지역 농산물 소비가 함께 이어지는 선순환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무더운 여름철에도 주민들이 부담 없이 건강하고 시원한 한 끼를 즐길 수 있도록 계절 맞춤형 메뉴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천원국시가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착한 먹거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는 앞으로도 계절과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메뉴를 발굴해 천원국시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복지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도 힘을 예정이다. 서구는 천원국시를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복지와 일자리, 지역 상생이 함께하는 대표 정책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 북구, 도심 침수 대응 상황 훈련 실시

주민·북구청·경찰·소방 등 50명 참여

수해 취약지역 대응체계 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구청장 신수정)가 주민과 함께 여름철 호우 상황에 따른 단계별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9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신안교회 교육관에서 신안동 주민, 북구 재난 관련 10개 부서, 북부경찰·소방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집중호우 대비 도심 침수 대응 가상훈련’이 추진된다.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상황 발생 시 상황 전파, 초기 조치, 교통 통제, 주민 대피 등 일련의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여름 극한 호우

상황을 가정해 기상특보 발효에 맞춰 3단계로 운영되는 재난안전 대책본부 가동 과정과 각 부서의 조치 사항을 모의 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북구는 훈련이 종료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 사항은 검토해 대응 체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한편, 훈련 시작 전 주민들에게 민선 9기 1호 결재 안전인 ‘수해 취약지역 예방 종합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계획은 ‘인명보호 최우선,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여름철 반복되는 폭우 피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난 1일 수립

됐으며 총 7개의 핵심 전략으로 구성됐다. 계획 내 피해 예방 방안으로는 동장 주민 대피명령권 신설, 취약계층 재난 정보 수신기 보급, 재난 경보 방송 장치 및 전광판 설치 등의 단기 대책들과 2031년까지 총 2,272억 원이 투입되는 9개의 중장기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북구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실제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장 대응 역량 높일 계획이다.

특히 주민들이 재난 대응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실전형 훈련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의 대피 요령과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한 훈련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응 매뉴얼에 반영할 예정이다. 북구는 기

상 상황에 따른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상황 전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 연락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빗물받이와 배수시설 점검 등 사전 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취약계층과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상시 유지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북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북구는 앞으로도 주민 참여형 재난 대응 훈련을 정례화해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 확산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김정관 기자



북구청 전경 사진

/광주 북구청 제공

